뉴스홈 | 최신기사

## 이승엽 일본시리즈 선발 결장 '왜?'(종합)

NEWS

송고시간 | 2008-11-06 19:48













장현구 기자

이승엽 일본시리즈 선발 결장 '왜?'(종합)

(도코로자와<日 사이타마현>=연합뉴스) 장현구 기자 = 이승엽(32.요미우리 자이언츠)이 6일 일본프로야구 챔프 결정 전 일본시리즈 5차전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것은 요미우리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.

요미우리는 12타수 1안타, 삼진 8개로 부진한 이승엽을 빼고 타선을 강화해 5차전을 반드시 잡고 여유 있게 시리즈를 끌고 간 뒤 8,9일 홈구장 도쿄돔에서 열리는 6,7차전에서 우승을 확정하겠다는 전략이다.



2승2패로 맞선 상태에서 5차전을 져 주도권을 세이부에 넘겨 준다면 6. 7차전를 모두 이겨야 우승할 수 있기에 하라 다 쓰노리 감독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승엽을 벤치에 앉혔다.

하라 감독은 이날 5차전 선발투수 우에하라 고지가 안타 7개를 맞고 2점을 줘 1-2로 끌려 가자 4회 곧바로 불펜의 핵 야마구치 데쓰야를 올리는 총력전을 펼쳐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.

그렇다고 요미우리가 이승엽을 완전히 전력에서 배제한 것은 아 니다.

우승을 위해선 이승엽의 한 방이 절실하다는 건 하라 감독이 누 구보다 잘 안다. 하라 감독은 이승엽이 부담감을 지우고 스스로 타격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.

이날 1루수로 나선 오가시와라 미치히로가 이승엽이었다면 잡을 수 있던 타구를 안타로 만들어주면서 수비 강화 차원 에서도 이승엽이 필요한 상황이다.

어차피 요미우리와 세이부의 마지막 승부는 도쿄에서 가려지게 됐다. 요미우리는 6,7차전 세이부 선발로 예상되는 좌 투수 호아시 가즈유키, 이시이 가즈히사를 넘어야 6년 만에 정상을 탈환할 수 있다.

중심 타자 이승엽이 6, 7차전에서 좌투수 공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 셈.

이승엽은 이날 경기 전에 앞서 왼손 투수의 공만 때려내며 해법 찾기에 들어갔다.

1대1로 이승엽을 지도한 무라타 신이치 타격코치는 큰 모션으로 유인구에 이승엽의 타격 자세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 준 뒤 축이 되는 왼쪽 다리에 끝까지 중심을 두고서 허리를 강력하게 돌려야 외야로 뻗어가는 타구를 때릴 수 있다고 강 조했다.

클린업 트리오의 일원으로 결정적인 순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린 이승엽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일 본시리즈를 준비한다.

거듭된 세이부 투수들의 몸쪽 공 승부에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목적구까지 상실해 최악의 부진에 빠진 이승엽이 7일 휴 식일 페이스를 가다듬어 홈 팬 앞에서 화끈한 홈런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.





핫뉴스 →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'그날...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

프로야구 LG-SSG전 오심 내린 심판, 2군 강등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한국 유튜버,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..



cany9900@yna.co.k
-------------------

##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11/06 19:48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		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		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 ▶ 02:22

[영상] 입-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니 [영상] 곡사포·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 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

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, 2년 1개월만 종료...마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## 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○ 137 찰에 고발

**2**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0 대병원 자원봉사

**3**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 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 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##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**비주얼뉴스**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**테미별뉴스** 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**광고** KTX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/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 뉴스
 모바일 앱
 보다시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,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모맥스 한민족센터 K컬쳐기확단(K-ODYSSEY) 채용 IR.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nnev